

아시아성 바탕...전통·현대, 가상·현실 넘나드는 미래 모습 구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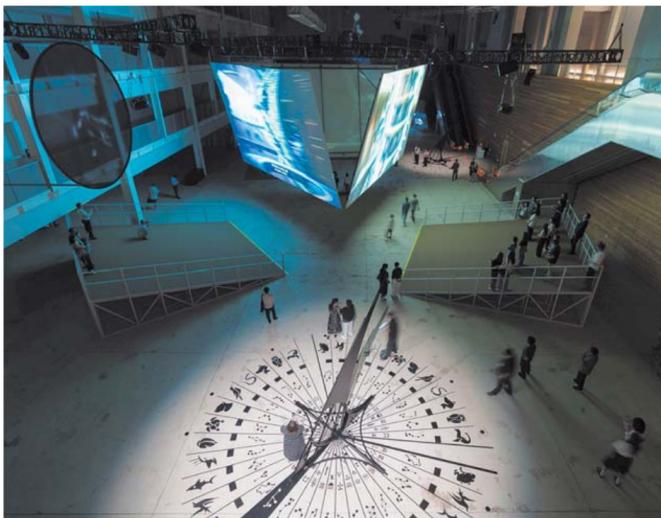
김아영 작가 ACC 미래상 신작 '딜리버리 댄서의 선: 인버스' 리뷰

가로 11m 대형스크린 3개 공중설치...압도적 규모 눈길 AI 활용한 내러티브 구성...서로 다른 시·공간 충돌 다뤄

반쯤 땅속에 묻힌 가상의 도시 '노바리아'. 바깥세상과 차단된 먼 미래의 도시 노바리아는 태양과 행성의 주기에서 자유롭다. 현실의 시공간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작동되는 이곳에 여성 배달 라이더가 등장해 이야기를 이끌어 간다. '딜리버리 댄서'라는 회사에서 일하는 '에른스트 모'. 그녀는 세관을 통해 불법으로 외부의 물건을 들여오는 일을 맡게 된다. 이 과정 속 과거의 시간관이 담긴 장치, 고대 유물이 흘러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도시는 서서히 균열을 일으킨다.

상자인 김아영 작가의 신작이다. 전시장에 들어서면 작품의 압도적인 규모에 눈길이 간다. 가로 11m, 세로 6m 크기의 대형스크린 3개가 천정에서부터 삼각형 모양으로 비스듬히 설치됐다. 허공에 떠 있는 듯한 스크린은 우주를 표방한 듯하다. 화면 앞 경사면이 관람석을 대신한다. 관객들은 여기에 자유롭게 앉거나 누워 편안하게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여기에 평상시 개방하지 않는 캣워크 전시 관람로를 열어 작품 전체를 조망하며 규모감을 느낄 수 있게 했다. 전시장 양옆으로는 노바리아 세계를 여는 두 개의 해시계가, 공중에는 또 다른 행성을 이야기하는 별자리들이 내걸려 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창조원 복합전시 1관에서 선보이는 '딜리버리 댄서의 선: 인버스'는 올해 처음 시행한 ACC 미래상 수



'딜리버리 댄서의 선:인버스' 전시 전경

(ACC제공)

플랫폼 노동 문제, 알고리즘으로 인한 시공간의 뒤틀림을 이야기했다면, 이번엔 행성의 영향을 받지 않는 가상 세계가 활동 무대로 펼쳐진다. 전시 제목 중 '선(Aro)'은 해시계와 작품 속 달력 판의 곡선, 호의 형태를 의미한다.

이 작품 속에서 시간과 공간, 인간과 역사 모두를 아우르는 '통로'로 읽힌다. 반비례 관계를 뜻하는 '인버스'는 물리학에선 속도의 역수로서 시간을 압시한다. 작가는 비서구권의 고유한 시간력, 여러 문화권의 달력을 광범위하게 리서치했다.

작품의 내러티브는 그가 AI와 실시간으로 대화하며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도시의 아주 작은 요소들에 조금씩 해상력을 높여 디테일을 더하는 방식으로 작업이 진행됐다.

눈을 땀 수 없는 화려한 화면 구성과 음향은 단순한 볼거리를 넘어선다. 여기에 근대화 이후 사라져가는 것들에 주목한 작가만의 작업세계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작품 말미에 스토리가 일순간 멈추며 영상 파편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파열의 구간'이 상영된다. 1분30초 가량 무수히 쏟아지는 이미지의 향연은 AI와 수많은 협업을 거쳐 생성됐지만, 결국엔 사용되지 못하고 버려진 장면들이다. 알고리즘을 탄, 예측하지 못한 수많은 이미지가 홍수처럼 쏟아진다.

전시장 한편에선 전작인 '딜리버리 댄서의 구'가 상영되고 있다. 신작의 기술력과 세계관, 스토리라인을 함께 비교하며 보기 좋은 관람 포인트다.

작가의 인터티브 영상, 작품 구성과 일련의 과정 등이 담긴 아카이브 색션도 마련됐다. 지난 몇 년간 다양한 영역을 넘나들며 리서치와 작품활동을 펼쳐온 작가의 지난 발자취를 살펴볼 수 있는 공간이다. 전시는 내년 2월16일까지. /최명진기자

“아시아인 주체 된 미래 예술언어 그려보고 싶었죠”

인/터/뷰 김아영 작가

“서구식 근대화, 특히 한국 사회에서 반작용적으로 이를 받아들이게 되면서 생기는 문제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아요. 최근엔 아시아인이 주체가 된 미래를 생각해볼 수 있죠. 이번 신작은 보기에 마치 SF적인 미래 속 상상 같지만, 사실은 현재의 문제를 조금 낫설게 바라보는 거예요. '아시아성'에 늘 관심을 가져왔고, 또 점점 나이가 들수록 결국 제가 속해있는 이 사회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ACC 융·복합 예술 분야 수상제도 'ACC 미래상' 첫 수상자인 김아영 작가를 지난 5일 전시장에서 만났다.

김 작가는 지난해 '딜리버리 댄서의 구' 작품으로 세계 최대 미디어아트 어워드 '프리아르스 일렉트로니카'에서 골든 니카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 수상작은 영국 테이트 모던에 소장됐으며 최근 뉴욕현대미술관(MoMA)에서 특별 상영회가 열리기도 했다.

ACC 제작 지원을 받아 지난 8개월에 걸쳐 작업에 몰두한 작가는 “첫 수상자라 부담도 있었지만 전당의 전시 공간과 음향, 조명 등이 훌륭해 전시를 준비하는 내내 행복했다”며 “아시아나 비서구권 등의 뒤틀린 시간관에 대해 조사·연구해왔던 것을 많이 읽어 주신 것 같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작업 세계를 더욱 넓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ACC 미래상 수상작인 '딜리버리 댄서의 선: 인버스'는 전작과는 달리 생성형 AI 작업을 주된 도구로 활용해 제작됐다.

“작품을 위해 스크립트를 쓰는데, 이번엔 AI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내러티브를 위한 소스를 얻고, 그걸 바탕으로 다시 글을 쓰고 하는 방식으로요. 이미지 작업도 마찬가지로 예요. 노바리아라는 가상 도시가 굉장히 크

잖아요. 광장, 집, 비즈니스타운도 있고요. 프로토타입, 이미지 입력을 주고받으며 많은 협업자들의 도움으로 작업을 완성하게 됐어요.”

이 과정에서 생긴 수많은 시행착오와 버려진 이미지, 영상들은 작품 말미에 소위 '파열의 구간'으로 다시 태어났다. 작가는 이 구간이 작업의 중요한 중심점과 같다고 회상했다.

“어떤 논리가 끼어들 틈 없이 쏟아지는 이미지 화면인데요. 이러한 시도를 했다는 게 이번 작업의 차별점이고, 저로서도 한 걸음 더 나아간 지점이라 생각해요. 무작위성,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를 벗어난 영상의 지점이지요.”

작품은 'GPS가 없던 시절, 사람들은 어떻게 방향을 이해했을까'라는 질문에서 시작됐다. 20세기 초반 이후 근대화의 물결 속에서 양력(그레고리력)과 그리니치 천문대로

기준 시간이 통일되면서 각 나라 고유한 역법과 시간 계산법이 사라진 것에 작가는 주목했다.

“옛날엔 행성의 움직임과 별과 달의 각도를 재서 시간과 방위를 알아냈는데, GPS나 디지털 시대가 나온 이후로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우주를 관찰하지 않게 됐잖아요. 개인이 우주의 일부라는 관념 자체를 잊게 되지 않았나 생각했어요.”

작가는 기술과 예술의 융합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새로운 기술이 나타나면서 예술이 다양해지는 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완전한 내적 표현을 가진, 기능 없는 예술이 가능한지 그리고 그런 점에서 새로운 기술들에 항상 관심이 있고요. 그러면서 기술이 어떤 작품에서 전면화되는 건 지양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기술의 쇼케이스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보다는 기술이 어떻게 작품



'딜리버리 댄서의 선' 전시장 앞에 선 김아영 작가

과 완전히 융화될 수 있는지 고민하고요. 이 두 가지가 하나의 덩어리처럼 결합한, 그런 종류의 작업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해요.” /최명진기자

광주매일신문 전통시장활성화 인증کم페인

남광주시장

광주의 새벽을 여는 곳 남광주시장

어서오세요! 여기는 남광주시장입니다.

남광주시장은 광주를 대표하는 수산물시장입니다.

광주 동구 학동에 위치하고 있는 남광주시장은 1930년 '신광주역'의 개통과 함께 별고, 보성 등에서 직접 잡고 기른 신선한 해산물과 농산물을 열차에 싣고 파낸 것에서 시작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수산물, 야채, 국밥골목 등이 대표상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2019년 3월에 '문화관광형육성사업'으로 선정되어, 광주의 역사·문화 그리고 시장이 가진 특성을 즐기고 관광하는 공간으로 진일보 하고 있는 광주를 대표하는 전통시장입니다.

주최 : 광주매일신문 · 광주매일 TV 후원 : 광주광역시동구 문의 : 062)650-2099